

전체 주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함

성경: 막 1:15, 요 3:3, 5, 눅 4:43, 17:20-21, 벧후 1:4-11

I.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다 — 막 1:15, 마 6:33, 요 3:3.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을 내용으로 갖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왕국의 내용으로서 모든 것이시다 — 고전 4:20, 15:28.
- B. 하나님은 생명으로서 신성한 생명의 본성과 능력과 형태를 갖고 계시며,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한다 — 엡 4:18, 요 3:15.
- C.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본 원칙을 보아야 한다 — 요 3:3, 5, 15.
- D. 사실상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의 문제이다 — 롬 8:2.

II.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種)의 영역이며, 이 영역 안에는 모든 신성한 것들이 있다 — 요 3:3, 5.

- A.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간다 — 롬 8:3, 1:3-4, 요 1:12-14.
- B. 신성한 영역,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져야 하며, 이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 요 1:12-13.
- C.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종(種)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 요 3:3, 5.

III.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으로서, 이 생명이 움직이고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마 6:13하, 요 3:3, 5, 15-16.

- A.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한 유기체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위한 생명의 영역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에 의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표현하신다 — 요 3:5, 15:1-8, 16, 26.
- B.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곧 거듭남이다 — 요 3:5, 15, 요일 5:11-12.

IV.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 눅 4:43, 8:5, 10, 17:20-21, 막 4:3, 26-29.

- A. 하나님의 왕국은 놀라운 한 인격,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 골 2:9.

1.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 눅 17:20-21.
 2.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이 왕국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오신다 — 눅 4:43, 17:21.
- B.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신다 — 눅 8:5, 10, 막 4:26-29.

V. 우리는 우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발전을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 벨후 1:1, 4-11.

- A.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이다 — 벨후 1:1.
1. 모든 신성한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히 이 풍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벨후 1:1-8, 3:18.
 2. 이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자라며, 결국에는 성숙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이며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될 자격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엡 4:13-15, 골 2:19, 벨후 1:11.
- B. 우리는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한다 — 벨후 1:10-11.
1.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벨후 1:3-7)이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2.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탁월한 미덕들(에너지)로 말미암아,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갈 능력과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 벨후 1:3, 벨전 5:10.
 3. 생명이 자라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발전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VI.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 영의 직감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데로 회복되어야 한다 — 마 5:3, 고전 2:11, 막 2:8.

- A. 무죄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며, 양심 시대에서는 자기 지배의 원칙, 그리고 인간 통치 시대에서는 인간 지배의 원칙을 본다.
1. 타락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졌다 — 창 2:16-17.
 2.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견고하게 하셔서, 사람을 통치하는 일에서 그분을 대표하게 하셨다 — 행 24:16.
 3. 홍수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기 지배에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 그분을 대표하여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다 — 창 9:6, 롬 13:1.
- B.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 지배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인간 지배에서 신성한 다스림으로 회복시키셔야 한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된다 — 마 5:3, 8, 6:33.
- C.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따르면, 사람은 반드시 인간 지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자기 지배를 경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기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 D. 양심을 처리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단지 우리를 자기 지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를 회복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 마 5:3.
- E. 자기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자기 지배는 우리가 우리 양심의 느낌에 의해 살며, 우리 양심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행 24:16.
 2.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우리 영의 직감에 의해 살며, 직감에 책임을 지는 것 곧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a. 우리의 영 안에는 직접적인 감각을 갖고 무언가를 깨닫고 분별하며 인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이다 — 고전 2:11, 막 2:8.
 - b. 우리가 우리의 직감에 의해 살고 이 직감에 의해 통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다.
- F.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영의 직감에 의해,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산다 — 롬 8:6.
1. 신성한 생명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이다(엡 4:18). 이 느낌이 생명의 감각이다.
 2. 생명의 감각에 의해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육체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그 영 안에서 사는지를 알게 된다 — 롬 8:6.
 3.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지시한다 — 롬 8:4.
 4. 하나님의 왕국에는 실재가 있으며, 이 실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서 신성한 생명을 사는 생활이다 — 마 5:3, 8, 20, 6:33, 7:2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더욱 부지런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함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부지런하여’라는 말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데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견고하게 만든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언급된 미덕들을 발전시키는 데 부지런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의 여부에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열거한 미덕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이런 미덕들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철저히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

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넘치는 공급으로,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탁월한 미덕들로 말미암아,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만 천당에 가도록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절에서 영원한 왕국이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데(단 7:13-14), 이 왕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눅 19:11-12).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미덕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딤후 2:12, 계 20:4, 6). 이와 같이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벧전 5:10, 살전 2:12).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주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그 신성한 씨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미덕들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발전시키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된다면, 장차 올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6장, 54-55쪽)*

성숙과 왕의 직분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이 모든 미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우리를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더욱 부지런하게 이 모든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라고 명한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 안에서 우리는 신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졌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성숙이 없으면 왕이 되기란 불가능하다. 설사 주님께서 성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보좌에 앉혀 주신다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의 직분을 행사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미 보배로운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이다. 신성한 모든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히 이 풍성을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덕에 지식, 지식에 자제를, 자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신성한 사랑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성장하여 결국에는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바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엡 4:13). 그때 우리는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될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7장, 62-63쪽)*

양심과 통치의 관계

몇몇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일곱 시대, 곧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로 나누고 있다. 처음 세 시대는 통치의 원칙에 따라 분류된다. 무죄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을 보며, 양심 시대에서는 자기 지배의 원칙, 그리고 인간 통치 시대에서는 인간 지배의 원칙을 본다. 세 가지 다스림 중에서 자기 지배를 받는 것은 양심과 관계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없었다. 이것이 소위 무죄 시대였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았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졌다. 불행히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안팎으로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셔야 했다.

따라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때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 안에 양심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여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소위 양심 시대이다. 이 시대에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양심에 대해 책임을 졌다. 사람은 이러한 자기 지배 아래에서 불행히도 또다시 타락했다. 사람은 양심의 책망과 통제를 무시했고, 그 결과 살인과 간음에 빠졌으며, 또한 완전히 타락하여 사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홍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대를 심판하셨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창 9:6)라고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기 지배에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어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여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국가가 시작되었고, 인류 가운데 정치적 권력의 지배나 사회적 권력, 또는 가족 가운데의 통제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 국가 안에는 대통령과 관료들이 있고, 한 공장에는 감독자들이 있으며, 한 가족 안에는 부모와 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다. 이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람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인간 통치 시대이다.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기 통치로의 타락이었고, 또한 자기 통치에서 사람의 통치로의 타락이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고상하게 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천하게 된다. 오늘날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거절한 상태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의해 통제를 받음으로 자기 통치 아래 있지만, 그들의 양심의 영향력은 매우 약하다. 대다수가 인간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순응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인간 통치 시대에서도 여전히 실패했다. 그들은 불순종할 뿐 아니라 벗어나고자 하고, 심지어 인간 통치를 전복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반역적이고 무질서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사람의 지배를 받는 데서 완전히 실패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 지배로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인간 지배에서 신성한 다스림으로 회복시키셔야 한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한순간에 실현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인간 지배로 하락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자기 통치의 단계를 지나 하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따르면, 사람은 반드시 인간 지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자기 지배를 경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기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자기 지배는 인간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이므로, 사람은 구원을 얻을 때 먼저 인간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지배로 되돌아가야 한다.

인간 지배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람 앞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많은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사람의 판결과 주목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양심의 느낌에 따라 생활한다. 그들은 자기 양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모든 말과 행동에 제한을 받는데, 이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은 자기 양심이 인정할 때에만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롭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배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그러지 못하다.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사람의 지배를 요한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근로자들은 감독들에게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할 뿐 속의 양심은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사람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상태에 살고 있음을 크게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이 철저히 처리될 때에만 타락한 인간 지배의 상태에서 구출되어 양심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럴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의 느낌을 따라 살며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심을 처리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단지 우리를 자기 지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다만 양심의 느낌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반 정도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단지 사람으로 인간 지배에서 자기 지배로, 사람의 시야에서 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사람으로 자기 지배를 거쳐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도록, 즉 양심을 거쳐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양심으로 되돌아가고자 양심을 처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이지만, 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자신께로 회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을 처리하는 최종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기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기 지배는 사람이 자기 양심의 느낌에 의해 살며 자기 양심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이 영의 직감에 의해 살며 직감에 책임을 지는 것, 곧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심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을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감에 의해 살고 직감에 의해 통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양심은 옳고 그름의 느낌만 지니고 있다. 양심은 그릇되고 악한 것은 모두 유죄 판결하며, 옳고 선한 것은 모두 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직감은 선악과 옳고 그름을 능가한다. 직감은 그릇된 것 이상이고 옳은 것 이상이며, 악한 것 이상이고 또한 선한 것 이상이다. 직감은 그릇되고 악한 것을 모두 유죄 판결하지만, 옳고 선한 것이라고 반드시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 직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계 속하며, 생명에 속한 것만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양심은 거짓말을 유죄 판결하고 진실한 말은 인정한다. 만일 우리가 양심에 의해 산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한 다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직감에 의해 산다면, 하나님의 느낌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진실이라고 해도 모두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 속하고, 그 영계 속하며, 생명에 속한 말만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형제가 말씀을 전할 경우,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양심에 의해 점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고, 무슨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어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은 선악과 옳고 그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느낌으로는 이런 방면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직감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양심과 직감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또한 자기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 사이의 차이점들이기도 하다.

오늘날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세

가지 지배 형태가 합쳐진 상태로 살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인간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들 중 또 한 부분은 자기 지배인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극히 일부분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직접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철저히 양심을 처리하여 소극적으로는 인간 지배에서 구출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생명의 체험(상), 155-161쪽)*